

#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정 정 식

<서울특별시립 종로도서관 열람과장>

## 1. 서 론

문화향상과 국력의 부강은 지식의 보급을 통한 대중교육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와같은 대중교육 기반 가운데는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기구보다도 가장 이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공공도서관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물질적 성장에 따른 경제적 풍요로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져있는 정신적 빈곤으로 인하여 수많은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으며 특히 비행청소년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공도서관은 일반국민의 정신적 지적요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일반대중의 양식의 보급처인 동시에 정신자원의 요람으로써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더 한층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은 인구 2만-3만에 1개관이며 800~1200m의 거리에 분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 적극적이며 질적인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때 우리나라에서는 도서관 숫자상에 있어서도 인구 10만명 당 1개관도 못미치고 있는 현실이며 800-1200m 간격의 도서관운영이란 상상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질적인 봉사를 국부적인 봉사에 그칠수 밖에 없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종로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느라 형편없이 부족한 도서관 시설과 자료이용을 극대화 시키고자 이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먼저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우리도서관 사례,

추진계획 등을 언급하므로써 전국의 공공도서관 사서들이 작은도서관 만들기에 많은 참고를 하고 각 지역에서 적극 참여하여 1개관당 4개 분관문고 또는 배본소, 정보소 등을 설치하여 부족한 도서관을 확장시키며 공공도서관 발전의 획기적인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2. 문고설치사례

### 가. 성산문고

성산문고의 설립은 지역적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 언제나 쉽고 아무 부담없이 도서관자료 이용, 문화 및 모든 생활정보제공, 회의, 강연회, 좌담회, 각종 강좌, 주민행사가 이러한 종합문화공간인 문고에서 이룩되도록 하기 위하여 당시 시립도서관별 분관설치사업이 교육감 지시에 의해 학교 유휴교실을 이용하여 추진되었으나 종로도서관에서는 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인구밀집지역인 마포구 성산동 시영 아파트단지(3,710세대)의 공영건물(독서실)을 무료임대하여 분관형태의 문고를 개설하기에 이르렀다. 초기에는 시설관리면에서 주민들과 잦은 분쟁이 있었으나 담당사서들의 지혜로써 난관을 극복하였으며 현재는 작기는 하지만 1개 도서관의 역할을 다하는 훌륭한 도서관이 되었다. 성산문고의 개설 일자 1987년 10월 16일이며 전용면적은 378m<sup>2</sup>(114평)으로써 직원 6명이 파견되어 주민봉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나. 한신문고

성산문고 설치 후 각종 매스컴에서 홍보됨으로써 각 지역주민들이 점차 도서관 혜택을 인식하기에 이르렀으며 문고설치의 요구 또한 빈번해졌다. 이에 당 도서관에서는 문고개설이 도서관봉사의 시급한 과제이며 적극적인 봉사와 자료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되었고 또다시 우리도서관에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반포지역 주민들의 문고개설 요구에 따라 가장 밀집된 단지인 잠원지역 한신아파트(110세대)에 기존의 노인정 건물 15평을 개조하여 1992년 4월 17일 한신문고를 개설하였으며 문고개설시 비품은 한신공영에서 제공받고 주민의 도서기증 및 당도서관자료, 응진출판사등의 기증도서로써 총장서 2,200권을 비치하고 문고운영은 주민중에서 도서관에 참여하여 봉사할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도서관 1일 교육을 시켰으며 명예사서로서 위촉하여 part time으로 문고운영을 성공리에 진행중이다.

특히 한신문고 개설에 가장 힘써주신 분은 전 국회의원이셨던 김현자의원 보좌관을 하셨고 '87년 도서관법 개정 당시에도 큰 역할을 하셨으며 현재 자원봉사능력개발원 홍보실장이신 홍양희씨의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이 두개의 문고는 우리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태동시킨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 다. 복음자리 도서관

우리도서관에서는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의 일환으로서 1992년 11월 19일 관악구 신림동 B지구에 15평 규모의 가정집에 도서관을 개설했으며 이 도서관은 심양교회의 차정규 목사님께서 유료임대를 낸 가정집이다. 방 세개를 개조하여 장서 3,500권을 가진 작은도서관으로써 도서관과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운영이 될 것이다. 운영은 자원봉사자 2명(도서관학과 졸업생)으로 계획적이며 조직적으로 종로도서관과 연계하여 거리상시간상 도서관을 이용치 못하는 주민에게 봉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관악구에 도서관이 없음을 고려해 볼때 이 지역에서 도서관 건립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산실이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이 지역 시의원 및 구의원들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보다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3.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배경

한신문고 개설 몇달후 다시 작은도서관 설치요청이 들어왔다. 여기에서도 크게 역할을 해주신 분은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홍양희 홍보실장님이다. 자원봉사능력개발원의 한 봉사 part로서 소년사랑회가 조직되어 있으며 이 소년사랑회는 또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비행청소년 선도를 담당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었다. 이 분들을 통하여 보호관찰소 내에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열람과 내에서는 여러모로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또한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개설해주기로 반성락을 한 후 소년사랑회의 간사이시며 보호관찰소 보호의원들의 강의를 담당하고 계시는 박영원 강사님의 소개로 보호관찰소 임안식 소장(부장검사)과 협의하기에 이르렀고 이 협의과정에서 현재의 관찰소가 휘경동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15평 규모의 도서관을 상호협조하여 개설하기로 합의한 후 준비단계에 들어갔다. 처음 이 방의 용도는 컴퓨터실을 만들기로 했던것을 변경하여 도서관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보호관찰소에서는 비품을 마련하기로 하고 우리도서관에서는 도서를 기증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운영은 우리도서관에서 소년사랑회 회원들을 교육시킨 후 명예사서로 위촉하여 운영기로 결정했다.

우리도서관에서는 여기에 필요한 자료기증을 어떻게 받을것인가를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초기단계에는 보호관찰소 도서관 개설과 비행청소년에게 양서보내기 운동을 위해 후원기업, 출판사등을 방문하였고 몇몇 출판사에서 약간의 기증도 받았다. 특히 김영사의 박은주 사장 말씀이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예산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으니 열심히 해 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국에 확산을 시킬수 있으며 도서관 발전의 저변을 확고히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운동이 될것이라는 판단을 하여 1차계획서를 작성했다. 동계획서를 들고 전국에 작은도서관 개설과 보호관찰소 내 12개 문고를 만들 자료후원 요청에 협조해 달라는 내용과 또한 작은도서관 갖기 사례집을 가지고 현대건설 문화실을 찾아가 담당과장을 만나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의 취지를 말씀드리니 많이는 협조해 주지는 못해도 책임지고 협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 과정에서 과장의 관심사는 어느 언론기관에서 후원을 받느냐 하는 것인데 당시 우리는 후원을 약속받은 언론기관이 없는 상태로서 조금 곤란을 느끼며 돌아와 다시 주식회사 대우 기획관리실을 방문 후원을 요청하니 역시 후원 언론사가 어디냐는 말을 듣고 또다시 교보문고 홍보실 차장을 방문하니 역시 같은 말을 듣게 되었으며 기타 출판사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기에서 느낀것은 언론사의 후원이 있어야 이운동을 전개하는데 성과를 얻을수 있게구나 하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후원 언론사를 찾기로 결심을 굳히고 소년사랑회와 좌담회를 개최하는 과정을 신문에 게재키로 하고 경향신문에서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을 후원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별효과를 보지 못하고 이궁리 저궁리 전전공공하기에 이르렀으며 대형신문사 후원을 받지 못하면 주간교육신문사, 종로신문사만이라도 후원을 받자는 이야기도 나왔으나 계속하여 대형신문사를 찾기로 결정하고 일차 주간교육신문사 김상욱 주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니 쾌히 승낙을 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서울신문사 논설위원이시며 우리공공도서관 발전위원회 위원이시기도한 이중환논설위원님을 찾아뵙고 작은 도서관 갖기운동 계획서와 공문을 보여드리니 즉석에서 사업국장에게 공문을 들고가 홍보후원을 부탁하니 사업국장인 최신희국장님께서도 좋은 사업이라는 말씀을 하시며 적극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돌아와 결재나기를 몇주 기다렸으며 소식이 없자 초초한 마음도 있었으나 스포츠서울 "1992년 11월 16일자에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을 스포츠서울, 서울신문과 함께"라는 기사가 처음 게재되었으며 스포츠서울 문화부의 박화숙차장이 직접 담당하면서 1993년 12월 31일까지 적극협조할것이며 이 사업은 또한 서울신문사 숙원사업이기도 하니만큼 즉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서울신문사의 후원을 받는 과정에서 한국도서관협회 김경일 국장님을 방문하여 동계획을 말씀드리니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지역대표 도서관장이며 독서문화진흥회 부회장이신 한경희 관장님, 보호관찰소 임안식 소장(부장검사)님 등 많은 분들이 적극 협조해 주겠다고 하시었으며 문화부의 김갑수 사무관은 에스콰이어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주시는 등, 여러분들의 관심에 먼저 지면으로나마 정중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또한 앞으로도 이 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실 모든 분들에게도 미리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제 후원 신문사도 확보 되었기에 이 운동 전개를 위해 우리 직원들은 총력을 다할 것이다.

#### 4.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계획

##### 가. 목적

- (1) 작은도서관 만들기를 전국적으로 확대
- (2) 도서관을 사회에 필수불가결의 시설임을 제고시키고
- (3) 도서관 관외봉사 확대 실시
- (4) 불량청소년 및 비행청소년 선도

나. 명칭: 작은도서관 갖기 운동

다. 주관: 서울특별시립 종로도서관

라. 기간: 1992. 10. 1-1993. 12. 31

마. 협찬: 기업, 기관, 단체, 개인

바. 후원: 서울신문, 스포츠서울, 주간교육신문, 종로신문 등.

##### 사. 세부 추진 계획

- (1) 도서관 문고 개설

가) 대상: 전국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나) 장소: 기존건물 및 시설 이용

다) 비품 및 자료확보:

- 사회사업가, 기관, 단체, 기업, 지역 주민 등 후원
- 도서관 자료 이용

라) 예산: 비예산

아. 운영

- (1) 주민 자율 운영
  - 파트타임 및 전일제 운영
- (2) 도서관 지원 체제 확립
  - 순회문고
  - 배본소
  - 정본소
- (3) 자원 봉사자 활용

자. 1단계 추진 계획

- (1) 서울 보호관찰소 도서실 설치 (12월중)
- (2) 신림 6동 B지구 (11월중)
- (3) 봉천동 현대 아파트 단지
- (4) 반포 아파트 단지
- (5) 보호 관찰소에 보호받고 있는 비행청소년에게 양서 보내기

차. 2단계 추진 계획

- (1) 서울 전역 및 점차적으로 전국 확산
- (2) 전국 공공도서관에서 4개 문고 갖기
- (3) 각 시도의회 의원들-지역구에 문고 2개 만들기

5. 지역사회 단위 도서관의 역할

가. 대도시 및 중소도시 도서관

대도시 및 중소도시에 있는 도서관을 이 운동에 참여 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을 만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각 도서관에서는 공간만 마련된다면 자관의 도서를 1,000-2,000권을 기탁도서로서 분관, 배본소, 정본소 등에 설치하고 운영방법을 교육하고 봉사에 임하면 될 것이다.

교육내용은 도서관 이용지도와 관외대출 운영방법 등 간단한 교육으로서 가능할 것이며 또한 책은 있으나 공간이 없는 사람, 공간은 있으나 책이 없는 사람을 발굴해 연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최대한 지역 신문의 후원을 받으면 이 운동을 쉽게 전개할 수 있다.

나. 군립 도서관

최근 설립된 군립 도서관 등에서는 인원, 예산, 자료의 부족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데 힘이 들것이라는 생각들을 하겠지만 아무리 인원, 예산 및 자료가 부족하다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6. 제 언

이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간곡히 부탁 드리고 싶은것은 이 글을 읽으며 의아해 하고 어떻게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분들은 종로도서관을 찾아오시면 확실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론을 알고 이론대로 열심히 일해 왔지만 사회를 개척하는 데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예산이나 자치단체의 예산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한번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너 나 할것 없이 올해 책의해를 맞이하여 크게 분발합시다.

이론적으로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하등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형식을 타파하고 행동으로 이 운동을 전개 합시다.

분류자는 분류, 목록자는 목록, 참고 봉사자는 참고봉사 등 나는 오늘 하루 주어진 일만 하면된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도서관계 및 사회를 꿰뚫어 봅시다.

나는 하위직이니까, 내 업무가 아니니까, "이 운동과는 무관한 사업이야"하는 생각을 버리고 상급자가 이해 못할때는 간곡히 권고 드리고 하급자가 모를때는 상사가 잘 지도하여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동운동을 성황리에 끝낼 수 있도록 합시다. 열심히 노력할 때 우리를 도와 줄 사람이 무수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재탄생하는 마음으로 이 운동 만큼은 절대적으로 추진합시다. 그

리고 그 다음 단계를 위해 재도전 합시다.

도서관의 모든 활동에 대해 어느 누구도 나쁜 인식을 갖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업인도 정치가도, 교수도, 사업가도, 일반주민도, 어느 사람이라도 우리를 지원하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물질이 아니면 정신이라도 지원해 줄 것입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우리 이 한해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렵니까! 나와 사회와 내 후배와 국민을 위해 한해를 불태워 보지 않으렵니까! 봉사를 극대화 시킵시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책부서는 정책부서대로 할일이 있으며 교수는 교수대로의 할일, 공공도서관 사서는 사서로서의 역할, 기업은 기업, 시민은 시민대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맡은 바 역할을 최대한 개발할 때 엄청난 효과를 거두리라 확신합니다.

처음 이 운동을 전개하려 할 때 현대건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대우, 교보문고, 에스카이어 등 많은 곳을 찾아가 후원을 요청했을 때 모두가 크지는 않지만 반응 자체는 엄청나게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느낀점은 우리가 도서관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음을 알았습니다. 각 지역의 사서들께서도 열심히 기업, 후원단체, 사회사업가, 독지가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커다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2년의 도서관 생활을 돌이켜 볼 때 사회 속에는 우리를 후원해 줄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요구를 해보지 않았었음을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후원을 주고 싶어도 알지못해 도와주지 못하는 무수한 독지가, 기업인 등을 우리는 개척해야 합니다. 기업인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도서관 발전을 위해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또 한번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할 것은 직업의식외에 개척자 정신도 함께 가지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개척자가 됩시다.

문화부에서는 올해를 책의 해로 정했습니다. 우리 공공도서관에서도 공공도서관의 해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을 추진하는 한해가 됩시다.

이 사업이 크게 전개되지 못하면 도서관 발전의

도약 시기가 늦어지리라고 우려해봅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93년 한해를 도서관 발전을 위해 미쳐 봅시다. 우리를 후원해 줄 모든 분들께 호소하고 또 호소해 봅시다. 나는 20여년의 도서관 생활을 하면서 큰 일을 한것이 너무 없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도서관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며 국민의 발전임을 깨닫고 총력을 기울여 봅시다.

서울 신문사의 스포츠 서울 신문이 우리를 '93년 12월 31일까지 홍보해 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우리 도서관인들이 하는 일을 열심히 홍보합니다. 각 지역 도서관에서는 순회문고, 분관, 배본소, 정본소 등을 개설했을 경우 구체적인 사례를 중도도서관으로 보내 주시면 저희들이 서울 신문사에 제출하여 계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전국의 도서관인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해 주시면 도서관 발전을 크게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함에 있어서 주민들이 보다 깊게 관심을 가져 보시면 작은 도서관 규모 보다는 좀더 큰 도서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국가나 자치단체에 큰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계기마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기업에서 기부금 또는 책을 공공도서관에 주었을 때 면세를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찾아가 후원을 요청합니다. 공공도서관에서 '93년은 이 운동에 주력해 주시고 다음해는 더 큰 운동을 전개해 봅시다.

한사람의 사서가 일을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모두가 협력하여 분담한다면 이러한 도서관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를 후원해 주신 김영사(출판사) 박은주 사장의 말이 생각납니다.

“예산이 없다고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하는 말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정독도서관 환경회 관장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위에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많겠구나’ 이들을 찾아나서자 라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 김경일 국장님, 이종환 논설위원님, 보호관찰소 임안식 소장(부장검사)님,

등 모두가 도와주겠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서여러분 우리를 후원해 줄 분들을 찾아다닙니다. 대도시에서는 대도시대로 중소도시는 또 그곳나름대로 찾아가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킵시다.

예를들면 의원을 찾아갔을때 시의원 또는 구의원 일 경우에 “의원님,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의원님 동네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역유지나 또는 독지가 사회사업가분들에게 말씀만 들려주십시오. 이 조그만 공간을 작은도서관화해서 주민들의 지적욕구를 충족시켜 드리면 주민들은 의원님께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서관과 연계시킨다면 여러가지 도서관 program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할 수 있을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장님,

부장님을 찾아갔을때는 “저희를 조금만 후원해 주시면 여러분들을 열심히 PR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득해 봅시다. 반드시 소득이 있을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또한 대학도서관 사서직, 국회도서관 사서직, 기타 전문·특수도서관에 근무하는 도서관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기관과는 무관하다고 생각지 마시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공도서관을 도와줄 수 있도록 충고 및 권고해 주는 일에 앞장을 서 주시면 공공도서관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도서관인 여러분 강력히 이 운동을 추진합시다! 총력을 기울입니다! 개척자가 됩시다!!

## 성산문고현황

### 가. 一般現況

- (1) 名 稱 : 서울特別市立鍾路圖書館 城山文庫
- (2) 開 館 日 : 1987. 10. 16(금)
- (3) 場 所 : 서울特別市 麻浦區 城山同 시영아파트 團地內
- (4) 전용면적 : 378m<sup>2</sup>(114坪)
- (5) 직 원 : 6명(사서직 3, 기능직 3)

표 1. 일반현황

구 분	내 용			비고
개 관 시 간	일반열람실 : 08:30-21:00 자료열람실 : 09:00-18:00			
휴 관 일	정기휴관 : 매월 2, 4째 월요일 임시휴관 :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열람실및장서 현황	1열람실(강의실) : 다목적실(교양강좌 및 아동교육강좌, 강의)	48석		
	2열람실(연구실) : 학습실(칸막이)	48석		
	종합자료실(관외대출)	40석	13,223권	

	모자열람실 및 유아교육교실 (유아놀이방)	20석	2,400권	지역주민 기증도서 2,500권 포함
	신문·잡지코너	16석	잡지 8종 신문 6종	
	자유열람코너	6석	100권	
	독서상담코너	포함		
	계	178석	15,723권	

나. 文庫利用現況

(1) 資料閱覽

(2) 一般閱覽室

표 2. 문고이용 현황

구 분	90년도		91년도		비 고
	이용자(명)	이용도서(권)	이용자(명)	이용도서(권)	
관외대출실	21,279	34,649	25,864	43,821	
모자열람실	26,267	45,396	23,817	32,190	
일반열람실	42,340		39,053		
계	89,886	80,045	88,734	76,011	

관외대출 세대수 : 3,965세대  
전화예약제도 : 접수, 회신

표 3. 장서현황

1992. 9. 30 현재, 단위 : 권

구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계	비 고
일반	227	499	106	743	105	347	281	26	6,119	386	8,839	
아동	475	39	10	248	604	48	16	32	2,444	468	4,384	
계	702	538	116	991	709	395	298	58	8,563	853	13,223	

표 4. 관외대출 유별 현황

'91.1~'91.12

구분	0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아 동	계
남	91	141	27	178	81	100	67	13	3,269	83	8,953	13,003
여	307	518	128	643	124	357	101	23	12,730	186	15,701	30,818
계	398	659	155	821	205	457	168	36	15,999	269	24,654	43,821

표 5. 관외대출 지역별 대출현황

'91. 9월중

구분	성산아파트	성산2동	성산동	중동	상암동	서교동	연남동	망원동	기타	시외	계	비고
이용자수	977	37	209	198	51	13	11	6	54	4	1,560	
이용도서	1,938	62	414	386	116	36	20	12	94	8	3,086	

표 6. 주요 행사 실적

대 상	프 로 그 램	시 간	회수/인원('90)	회수/인원('91)	비 고
아 동	독후감상화그리기	(수)15:00	43회 1,476명	44회 1,548명	대회 4회
	이야기동화	(금)15:00	46회 2,195명	36회 1,431명	대회 4회
	동시교실	(월)15:00	18회 393명		
	영어교실	(토)15:00	30회 1,003명	38회 966명	
	시창각교실	(금)15:00	40회 2,050명	8회 284명	
	음악교실(피아노)	(목)14:00	34회 1,500명		송년음악회
	독서교실	겨울, 여름방학	2회 87명	2회 107명	
	새싹독서회	(토)16:00	11회 305명	12회 120명	
	어머니와 함께하는 바둑교실	(화)10:00	18회 648명	20회 484명	
	일일도서관 교육			19회 865명	
일 반	한글서예(사군자)	(토)13:00	86회 1,403명	43회 587명	전시회4회
	난 교실	(수)10:00	6회 197명		
	분재교실	(화)10:00	6회 196명		
	영어회화	(목)10:00		31회 460명	
	일본어교실	(화)10:00		28회 1,072명	
	문학강좌	(수)10:00	1회 60명	1회 72명	
	다독서회	(목)11:00	10회 75명	15회 87명	
	음악교실(기타)	(목)10:00		36회 408명	합창단

다. 주요 행사 사례

구 분	내 용	대 상	비 고
1. 자원봉사자 활동	가. 도서관 홍보 · 방송(TV, 라디오) 신문, 가두캠페인 · 아파트 게시판·우편함이용, 가정방문, 문예지등 홍보		



구 분	내 용	대 상	비 고
	나. 지역사회 봉사활동 · 노인정문고 · 강연회, 건강, 취미강좌 · 폐품수집 재활용 운동 다. 도서관 업무지원 활동 · 명예사서위촉(24명) · 도서정리(지역주민기증분 2,500권, 입관료구입분 1,600권) · 관외대출, 열람지도 라. 아동교육강좌 지원 · 독후감상화 그리기 · 이야기동화 · 글짓기 교실 · 영어교실등의 강사지원 마. 교양강좌를 통한 봉사활동 · 한글서예, 바둑, 난, 분재, 영어회화, 일본어, 음악교육 바. 문예활동 · 독서회, 문예지발간(5,000부 발간 배포) · 신문을 통한 활동(창작발표, 신간소식컬럼) · 아파트 배포		
2. 독서저변확대운동 전개	가. 전세대 책읽기 운동 · 홍보물 배포, 반상회등 · 세대별 방문 회원등록 나. 모자글짓기 대회-TV, 신문방영, 출판사협찬(시상) 다. 독후감상화그리기대회-TV, 신문방영, 출판사협찬(시상) 라. 구연동화대회-TV, 신문방영, 출판사협찬(시상) 마. 독후감상화전시, 독서감상문 발표회 바. 모범이용자 및 다독자 표창	아파트 3,700세대  아동 아동 아동	
3. 독서교실	가. 국민학교 4-6학년 대상으로 겨울, 여름방학 나. 독후감작성법, 도서선택, 독서위생, 도서관이용법, 독서퀴즈, 독서활동, 독후감발표, 특강(음악, 독후감상화, 글짓기등)	국민학교 4-6학년생	
4. 독서회운영	가. 다독서회-독서활동, 문예지 발간, 독서토론 나. 세쌍독서회-독서활동, 독서감상문쓰기, 도서관봉사, 노인위문공연 등	주부(독) 국민학교 4-6학년생	
5. 교양강좌운영	가. 바둑교실-바둑신문 편집장 나. 난교실-난 협회장 다. 분재-고려분재연구원장 라. 한문-자원봉사회 마. 어머니 글짓기교실-자원봉사회	아동 주부 주부 주부 주부	

구 분	내 용	대 상	비 고
6.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 생활공간 이용	바. 음악교실(기타교실, 피아노교육)-자원봉사회 사. 서예(사군자)-자원봉사회 아. 영어회화-미국선교사 초청 가. 영화감상(일)-VTR이용 나. 작가 및 저명인사 초청 강의-작가와의 대화 및 건강강의, 취미강좌 다. 음악감상(합창단, 레크레이션) 라. 좌담회, 토론회, 반사회(27등)	아동 주부 주부	
7. 아동교육강좌	마. 유아 놀이방 운영-TV, VTR, 아동도서, 장난감 피아노 이용 가. 독후감화그리기(수)-자원봉사자(미대전공) 나. 이야기동화(금)-자원봉사자(국문학과전공)	국민학교 1-3학년생 국민 학교 1-3학년 생·유아	
8. 관외대출을 통한 독서지도	다. 시청각교실(토)-VTR, 카세트테이프, 종이접기 라. 동시교실(월)-자원봉사자(국문학과 전공) 마. 영어교실(토)-자원봉사자(영어영문학과전공) 바. 음악교육-피아노교육, 동요(자원봉사자:음악전공) 사. 일일독서교실-도서관주관이나 독서주간 아. 도서관 전학 및 현장학습-유치원 및 국민학교 가. 아동도서 관외대출시 규격도화지, 원고지배부 나. 가정에서 독서후 자모독후감상화그리기, 독서감상문쓰기 다. 대출도서 반납시 독후감상화, 독서감상문 제출 라. 매주 독후감상화(수), 글짓기교실(월)에 지도 발표 마. 독후감상화, 독서감상문 전시 바. 우수작 시상 *자율적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	국민학교 4-6학생 국민학교 4-6학생 국민학교 5-6학년생	
9. 도서관 유치 서명 건의운동	가. 문고의 계속 유지와 시립도서관 규모의 도서관 설립 요구 나. 아파트 전세대 서명 날인-자원봉사회, 부녀회, 노인회 합동 다. 건의처-청와대, 문화부, 서울시청, 교육구청, 마포구청 라. 서명운동, 자원봉사자활동, TV(KBS)방영		
10. 놀이방 설치 및 유아교육	가. 3-4세 미만의 유아 나. VTR, 피아노등 카세트테이프, 종이접기, 율동		

## 한신문고현황

가. 一般現況

名 稱：서울特別市立 鍾路圖書館 韓信文庫  
 開館日：1992. 4. 17  
 場 所：서초구 잠원동 60-4번지 반포3동 한신아파트 타운  
 面 積：15坪  
 閱覽室(館外貸出室)：20석  
 圖書數：2,200卷(아동도서 300권, 일반도서 1,900권)

나. 文庫利用現況

- 資料閱覽('92. 4. 7~9. 30)
  - 관외대출
    - 회원세대수：110세대
    - 이 용 자：1,800名(3,600卷)
  - 문고 내 열람：2,700名(5,400卷)

■ 主要 行 事 事 例

구 분	행 사 명	비 고
1. 지역주민의 문고 운영	가. 한신아파트(181세대)-자원봉사자활동(22명) 나. 일반적인 문고운영-열람봉사 및 관리 다. 자료수집 및 정리-수집된 기증도서 및 기타 자료	
2. 도서관 일일교육 (명예사서위촉)	가. 도서관 업무 교육-(도서관기능, 자료정리 및 관리 봉사) 나. 명예사서 위촉 22명	
3. 이동문고 순회자료	가. 기탁문고 500권 나. 순회자료(매월：200권)	
4. 기업체 협찬	가. 한신공영 -단독건물(15坪) -서가, 열람대, 도서 나. 출판사：웅진출판사 등 도서협찬	
5. 지역주민 한책 모으 기 운동	가. 도서, 잡지, 기타자료 1,500권	
6. 도서관 설립운동홍보	*서초구 관내 도서관 없는 것을 감안 가. 신문, 방송 홍보 및 지역주민을 통한 도서관 설립 홍보 나. 도서관 문고 개설 확대 운동 전개	
7. 작은도서관 갖기 운 동본부설립	*민간 자원봉사자 활용	예 정